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8회 청소년 문화제'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탑을 만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건·차분한 추모 분위기 '뜰에 박힌 행사' 관심 저조

5·18 31주기 결산

5·18 민중항쟁 31주년 기념행사가 지난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을 갖고 22일 금남로에서 제8회 5·18청소년 문화제를 치러 사실상 마무리됐다.

5월의 의미와 역사성을 알리는데 큰 비중을 둔 이번 5·18 31주년 기념행사는 '분신 정국 20주년'과 맞물리면서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을 받았다.

2년 만에 31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문제로 국가보훈처와 행사추진위원회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점도 긍정적이었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는 오월 정신과 이념

이 범국민적 시민·사회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위원회는 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5·18 역사 순례단'을 모집,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주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 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주먹밥 만들기'와 '헌혈의 행사'를 열어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다는 평도 있다.

특히 5·18 기념공원과 금남로에서 열린 '오월 누리제'와 '국민대회 및 시·도민 한마당' 등 멀어져간 80년 5월을 5월 정신 속에 담아냈다.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도 기념식을 앞두고 매화동산 재정비·바다보수·조형물 정비 등 묘지 새 단장에 나서는 등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그러나 전조등 켜기 운동·상무대 영장체험 해마다 되풀이되는 뜰에 박

힌 행사가 주를 이루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매 행사 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한 뒤 시국 현안과 연계 행사를 이끌어갔으나 올해 행사에는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시민 참가도 전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행사는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거나 축소됐다.

30주년 기념행사 하이라이트인 오월 창작가요제 '청'이 폐지됐다. 올해 예산은 4억원으로 지난해 18억4000만원 보다 5배 가까이 급감했다.

또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5월 관련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안전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경과보고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전조등 켜기 운동·상무대 영장체험 해마다 되풀이되는 뜰에 박

'장애학생 방학학교' 수강생·지원 늘린다

광주시교육청 올해부터 550명으로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기간 운영하는 '장애학생 방학학교'의 수강생과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이 학교는 방학 중 문을 연 위탁시설이 없어 집 안에만 머물거나, 학원에도 다닐 수 없는 장애학생들의 공부를 돕기 위한 위탁시설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여름·겨울 장애학생 방학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 1인당 40만원씩 모두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해당 시설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업참가 학생수는 550명으로 지난해 보다 100% 늘었으며, 예산도 같은 규모로 증가했다.

장애학생 방학학교는 1일 6시간 이상씩 3주 이상 운영되며, 광주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

운데 여름방학 275명, 겨울방학 275명 등 550명이 수업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장애학생 방학학교 운영 희망시설을 공모, 다음달 7일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장애학생 학부모는 최종 위탁기관 선정 후 해당 기관이 실시하는 수강대상 학생 공모에 응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생교육과 협력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 방학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장애학생의 학습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공무원 사적 동원 물의 송광운 북구청장 사과

장성 고향집 조경작업 중 공무원을 동원해 물의를 일으킨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은 지난 20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주민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이어 "2년 전 고향집인 장성군 삼서면 생가가 화재로 소실돼 공터로 남아 있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면서 "당시 공원 녹지과장에게 600만원을 주면서 '조경업자에게 사업을 맡겨 달라'고 부탁했는데, 마무리 과정에서 일부 상용직 직원이 동원됐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요음식문화전문가 육성 교과부, 광주 동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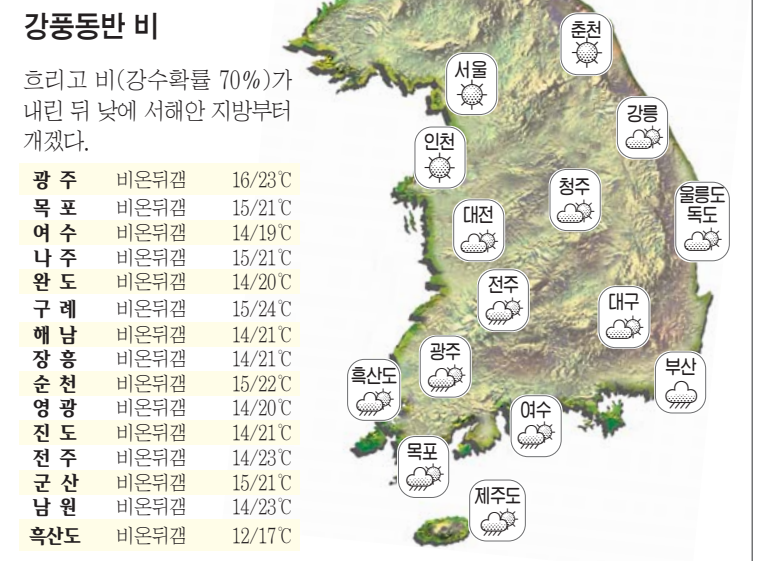
광주 동구(청장 유태명)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2011년도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에 '아시아음식문화전문가 육성 프로젝트'가 선정돼 국·시비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인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동구는 분석했다.

그 동안 동구는 평생학습 종합발전 계획 수립과 홈페이지 구축, 동구아카데미 운영, 특산업 인력양성사업 등 고용창출과 연계한 평생학습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시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자외선	보통	경고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미물	목욕	06:20	11:4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4.0m	미물	여수	00:55	07:1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4.0m	미물		13:03	19:00

국립공원의 아생화

수컷 벌 유혹하는 황금빛 입술꽃잎

《22》 금난초

금난초는 40~60cm 정도로 자라는 난초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다. 황금빛 꽃이 피는 금난초의 꽃은 4~6월에 줄기 끝부분에 선명한 노란색으로 피는데, 3장의 꽃잎과 꽃잎처럼 생긴 3장의 꽃받침으로 되어 있다. 꽃잎의 모양이 입술을 닮은 입술꽃잎은 난초과에 속하는 꽃의 특징으로 곤충의 눈에 띄어 수분이 쉽게 피도록 한다. (박재대 내장식물원 백암사무소 파장)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중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도·소매
할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룬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우이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일곡지구, 롯데빌딩, 코카콜라, 현대제과,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古家 고향의 맛- 전동 고가약오리탕

약탕기 홍삼삼계탕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오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오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예약문의 062)226-8254